

김승연의 화학그룹 비전... 한화토탈 5300억 투자로 선봉



한화토탈이 53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통해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번 투자로 한화그룹은 지난 8월 발표한 화학부문 5조원 투자 계획 실행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한화그룹의 화학부문 회사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를 이어왔다. 앞서 한화케미칼은 VCM·PVC 증설, 석유수첨수지 공장 신설에 3000억원을, 여천NCC(나프타분해시설)는 에틸렌, 부타디엔 생산설비 증설에 7400억원을 각각 투자하는 등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한화토탈은 충남 대산공장에 연간 폴리프로필렌 40만톤, 에틸렌 15만톤, 프로필렌 4만톤 생산 규모의 설비 증설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총 투자금액은 5300억원이며 2020년 연말 완공이 목표다.

이에 따라 한화토탈은 3800억원을 투자해 고부가 제품 생산 중심의 40만톤 규모의 폴리프로필렌 공장을 건설한다. 증설이 완료되면 한화토탈의 폴리프로필렌 연간 생산능력은 112만톤으로 증가, 국내

충남 대산공장에 5300억원 투자 40만톤 폴리프로필렌 공장 건설 합성수지 생산 확대·효율 극대화

선두로 올라서게 된다.

폴리프로필렌은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프로필렌을 원료로 생산되는 합성수지로 전기전자소재, 자동차 내외장재, 필름 및 포장재, 식품용기 등 생활 속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다.

한화토탈은 전 세계 폴리프로필렌 시장이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매년 5%씩, 1940만톤 규모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한화토탈은 1500억원을 투자, 대산공장 내 NCC 가스 크래커 증설을 통해 에틸렌 15만톤, 프로필렌 4만톤을 추가로 증산할 계획이다.

증설이 완료되면 한화토탈의 석유화학 기초원료 연간 생산량은 2018년 현재 에틸렌 109만톤, 프로필렌 93만톤 수준에서

에틸렌 155만톤, 프로필렌 110만톤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화토탈은 지난해 4월과 12월 9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에틸렌 31만톤, 프로필렌 13만톤, 폴리에틸렌 40만톤 증설을 결정한 데 이어 이번 증설 발표로 2020년까지 대산공장에 총 1조4300억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셈이다.

한화토탈은 이번 증설로 석유화학 기초원료 생산시설과 그 원료를 활용하는 합성수지 생산시설 확대를 동시에 추진, 공장 생산 및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가스 분해시설 및 생산시설 규모 확대를 통해

제조원가와 규모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합성수지 생산 구조를 고부가 제품 생산 위주로 재편한다. 현재 국내 최대 생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SM(스티렌모너머), PX(피라자일렌) 등 기초유분 사업에 편중된 주력사업군을 합성수지 사업까지 확장해 석유화학 시장 변동성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이번 증설로 저가 원료를 기반으로 한 북미 가스화학의 공세와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시장의 증설 경쟁 등 날로 치열해져만 가는 석유화학 시장 변화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적인 증설 공사 완료로 글로벌 종합 화학·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n6326@metroseoul.co.kr



한화토탈 대산공장 폴리프로필렌 생산시설. /한화토탈

SK(주) C&C-컨센시스 MOU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허브 만든다

SK(주) C&C는 세계적인 블록체인 리더 기업 컨센시스와 '블록체인 신규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전략적 사업 협력'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양사의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를 합쳐 국내 기업들이 블록체인 킬러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양사는 각기 보유한 블록체인 플랫폼·기술·서비스에 대한 공동 분석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사업 확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스마트 계약'이라고 불리며, 허가된 참여자만 접근 가능한 서비스다.

SK C&C의 클라우드 제트에 컨센시스의 주요 서비스 및 플랫폼 탑재도 논의한

다. 이를 통해 어느 기업이나 신속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컨센시스의 교육 프로그램인 '컨센시스 아카데미'와 협업해 기술 인력 양성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SK C&C의 테크 트레이닝 센터를 활용해 연말까지 한국 내 이더리움 감사 육성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 시장에 적합한 커리큘럼 개발도 논의하기로 했다.

SK C&C는 ▲하이퍼러저 기반의 블록체인 모바일 디지털 ID 인증 서비스(I DaaS) ▲국내의 선사들을 위한 블록체인 물류서비스 ▲블록체인 투표시스템 등의 솔루션 및 서비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컨센시스는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삼성전자, 2028년까지 올림픽 공식후원

LA올림픽까지 무선·컴퓨팅 후원 5G·AR·AI·VR 기술 권리 확보도

삼성전자가 2020년까지였던 올림픽 공식후원 계약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후원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4 파리 올림픽'에 이어 '2026년 동계올림픽', '2028 LA 올림픽'까지 무선·컴퓨팅 분야 공식 후원사로 참가하게 됐다.

4일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대표이사 사장과 다케다 쓰네키즈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마케팅위원회 위원장은 호 텔신라에서 2028년 하계올림픽까지 후원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계약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후원 계약을 통해 무선 및 컴퓨터 제품뿐 아니라, 제품에서 구동되는 5G, AR(증강현실), AI(인공지능), VR(가상현실) 기술의 권리까지 확보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으로 30년 간 글로벌 올림픽 파트너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삼성전자는 '1988 서울올림픽' 지역 후원사로 올림픽과 인연을 맺은 이후, 1997년 IOC와 글로벌 후원사인 TOP 계약을 체결하고 '1998 나가노 동계올림



고동진 삼성전자 IM 부문 대표이사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다케다 쓰네키즈, IOC 마케팅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이 2028 LA 올림픽까지 후원을 연장하는 조인식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픽'부터 무선통신 분야 공식 후원사로 활동해 왔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은 "인류의 혁신을 이끌어 온 무선 및 컴퓨팅 분야 제품 기술과 미래를 열어갈 4차 산업 기술을 통해 올림픽 정신을 확산하고 전 세계인들의 축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싼타페, 국내 SUV 최초 '10만대 클럽' 가입?

현대자동차 간판 모델 그랜저IG와 싼타페TM이 올해 내수 누적 판매 '10만대 클럽'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싼타페TM이 연 10만대 판매를 돌파할 경우 이는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가운데 처음이다.



현대차 싼타페.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6만4131대(내수 기준)를 팔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늘었다. '국민 세단' 반열에 오른 그랜저IG는 6월 이후 월 7000~9000대로 떨어졌다가 지난달 다시 1만1911대로 반등했다. 1~11월 누적 판매는 10만2682대로 '10만대'를 넘겼다.

현대차의 싼타페는 완전변경(풀 체인지) 모델로 출시된 3월 1만3076대의 판매를 기록하며 그랜저(1만598대)를 앞선 이후 8개월 연속 이어갔던 월간 베스트셀링카 자리에서 내려섰다. /양성운 기자 ysw@

전년 동월(4522대) 대비 99.0% 늘어 올해 11월까지 누적 판매는 9만8559대다. 최근 월 판매량이 9000~1만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이 없는 한 연말까지 10만대 돌파가 확실하다. 한국에서 연간 내수 판매 10만대를 넘긴 SUV 모델은 싼타페TM이 첫 사례다.

SK네트웍스, 말聯에 가전 렌탈사업 진출

SK네트웍스가 말레이시아에서도 가전 렌탈 사업을 시작한다.

SK네트웍스는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가전판매법인 'SK네트웍스 리테일 말레이시아' 판매인 발대식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박상규 SK네트웍스 사장 등 경영진과 판매 인력인 MC(Magic Consultant) 등 52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SK네트웍스는 지난10월 말레이시아 판매법인을 개소했다.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시아 국가 중 소득 수준이 높고

한국형 정수기 렌탈사업 모델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올 초부터 진출을 추진해왔다.

취급하는 제품은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냉온수 직수 정수기도 판매한다. 이름을 우리말로 그대로 표기한 'JK SOO'로 정하고 정수기 한류를 불러온다는 계획이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은 "오늘은 SK매직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알리는 뜻깊은 날"이라며 "동남아 경제의 중심인 말레이시아에서 항상 고객의 목소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SK네트웍스

리를 경청하고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 감동 실현을 통해 말레이시아 No.1사업자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